충무로 한국소설 영화 속속 제작

‘우리들의 행복한 시간’
‘오래된 정원’
‘선학동 나그네’→‘천년학’
⋮

‘우리들의 행복한 시간’

‘오래된 정원’

# 그때 그감동 다시 한번

## 탄탄한 스토리·스타급 캐스팅 호평
## ‘불꽃처럼…’ ‘황진이’ 등도 제작 예정

‘무소의 뿔처럼 혼자서 가라’, ‘깊은 슬픔’, ‘결혼은 미친 짓이다’ ‘서편제’ ‘겨울나그네’ ‘태백산맥’은 모두 한국 소설을 원작으로 한 영화들이다.

한국 작가들의 소설은 한 때 국내 영화계에 유용한 자양분을 제공했지만 최근에는 주춤했던 게 사실. 그 틈을 타 ‘플라이 대디’ ‘올드보이’ ‘어깨너머 연인’ 등 일본 소설과 만화 등이 잇따라 영화로 만들어졌다.

하지만 최근 충무로에서 다시 한국소설을 원작으로 한 영화들이 속속 제작되고 있다.

신호탄은 40만권 이상이 팔린 공지영의 베스트셀러를 원작으로 한 ‘우리들의 행복한 시간’. 시사회 등을 통해 호평을 받은 뒤 14일 개봉한 ‘우리들의 행복한 시간’은 3명의 여성을 죽이고 사형선고를 받은 27살의 사형수와 3번의 자살을 시도한 여교수의 눈물겨운 사랑이야기를 그린 작품으로 ‘파이란’의 송해성 감독이 메가폰을 잡았다.

원작자 공지영도 캐스팅에 만족했다는 강동원·이나영 투톱 체제에 윤여정·정영숙·강신일 등 탄탄한 조연들이 받치고 있다.

황석영의 장편소설 ‘오래된 정원’ 역시 현재 촬영을 마치고 개봉을 준비중이다. 광주항쟁을 전후한 격동의 한국사회를 배경으로 두 남녀의 사랑을 그린 작품으로 ‘그 때 그사람들’ ‘바람난 가족’ 등 문제작을 만들어온 임상수 감독이 메가폰을 잡았다. 주연은 염정아와 지진희.

영회 ‘서편제’에서 조우했던 이청준과 임권택 감독은 다시 한번 손을 잡았다. 남도 소리꾼 노인의 어린 아들과 눈먼 소경 딸에 관한 이야기인 이씨의 ‘선학동 나그네’는 임권택 감독의 100번째 영화 ‘천년학’으로 새롭게 태어났다.

김탁환의 소설은 두편이 영화로 만들어진다. 조선시대를 배경으로 진행되는 ‘방각본 살인 사건’에는 최근 김주혁이 캐스팅됐으며 프랑스 대사와 사랑을 나눴던 궁중 무희 이야기를 다룬 ‘리심’도 제작준비중이다. 특히 리심을 주인공으로 한 신경숙의 소설 ‘푸른 눈물’ 역시 싸이더스에 의해 영화로 만들어질 예정으로 있어 경쟁이 불가피하게 됐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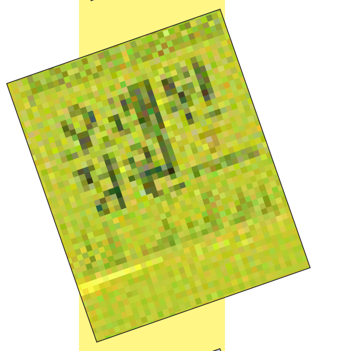
1905년 멕시코의 농장에 노예로 팔려간 조선인들의 이야기를 그린 김영하의 동인문학상 수상작 ‘검은꽃’은 현재 ‘내 머리 속의 지우개’를 만든 이재한 감독이 사나리오 작업을 진행중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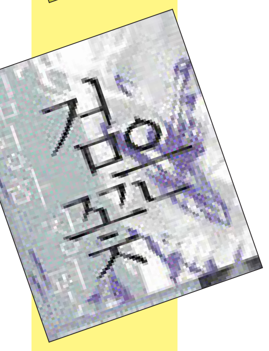
김영하의 단편 ‘사진관 살인사건’과 ‘거울에 대한 명상’은 이미 이은주·한석규 주연의 영화 ‘주홍글씨’로 관객들을 만난 바 있다.

1천만원 고료 세계문학상 수상작으로 지난해 한국소설 판매 1위를 기록한 김별아의 ‘미실’은 올 가을께 크랭크인 할 예정이며 안성기가 주연을 맡아 이미 한 차례 영화로 만들어졌던 조세희의 ‘난장이가 쏘아올린 작은공’은 장진 감독이 대표로 있는 ‘필름 있수다’의 김중 감독이 ‘거인’이라는 이름으로 리메이크한다.

그밖에 ‘분홍신’의 김용균 감독은 명성황후와 청년무사 무명의 사랑을 그린 야설록의 ‘불꽃처럼 나비처럼’을 영화로 만들 예정이며 북한소설을 최초로 영화화하는 ‘황진이’(홍석중작)에는 송혜교와 유지태가 출연중이다.

/김미은기자 mekim@kwangju.co.kr



## 주말 극장가

| 영 화 | 상영극장 |
|---|---|
| **우리들의 행복한 시간** 공지영의 소설을 원작으로 죽음을 앞둔 남자(강동원)와 자살을 세 번 시도한 여자(이나영)가 만나 교감을 나누게 되는 과정을 잔잔하게 그려냈다. 15세 관람가. | 롯데(광주·첨단), 메가박스, 무등, 밀리오레, 엔터, 콜롬버스(상무·하남), 프리머스 제일, CGV(상무·첨단), 하미, 목포 메가라인, 목포 CGV, 순천 롯데, 순천 프리머스, 여수 헐리우드 |
| **두뇌 유희 프로젝트, 퍼즐** 짜릿한 반전을 즐길 수 있는 범죄 스릴러 영화. X라는 미지의 인물을 중심으로 모인 5명의 개성강한 인물들의 스릴넘치는 이야기가 펼쳐진다. 18세 관람가. | 롯데(광주·첨단), 메가박스, 무등, 엔터, 콜롬버스(상무·하남), 프리머스 제일, CGV(상무·첨단), 하미, 목포 메가라인, 목포 CGV, 순천 롯데, 순천 프리머스, 여수 헐리우드 |
| **연애, 그 참을 수 없는 가벼움** 오래된 연애에 관한 지긋지긋한 악순환을 그려냈다. 장진영과 김승우가 험한 욕설을 내뱉으며 몸싸움을 벌이는 오래된 연인으로 출연한다. 18세 관람가. | 롯데(광주·첨단), 메가박스, 무등, 밀리오레, 콜롬버스(상무·하남), 프리머스 제일, CGV(상무·첨단), 하미, 목포 메가라인, 목포 CGV, 순천 롯데, 순천 프리머스, 여수 헐리우드 |
| **플라이트 93** 지난 9.11 테러 유일하게 표적에 충돌하지 않은 채 추락한 UA93편을 조명한 영화다. 15세 관람가. | 롯데(첨단), 메가박스, 무등, CGV(상무) |
| **뚝방전설** 날렵한 몸매로 춤을 추던 박건형이 18대 1의 ‘전설’로 돌아왔다. 전설을 꿈꾸는 청춘의 씁쓸한 모습을 그렸다. 18세 관람가. | 롯데(광주·첨단), 무등, 밀리오레, 엔터, 콜롬버스(상무·하남), 프리머스 제일, CGV(상무·첨단), 하미, 목포 메가라인, 목포 CGV, 순천 롯데, 순천 프리머스, 여수 헐리우드 |
| **센티넬** 미국 대통령 암살음모를 주제로 국가 안보국 최고참 요원인 피트 게리슨(마이클 더글라스)과 피트의 수제자 데이빗 베킨릿지(키퍼 서덜랜드)의 두뇌게임이 펼쳐진다. 15세 관람가. | 메가박스, 무등, 콜롬버스(상무), CGV(상무), 하미, 순천 프리머스 |
| **일본침몰** 일본이 갑자기 생긴 대지진으로 바다 밑으로 가라앉는다는 극단적인 가정아래 펼쳐지는 재난 블록버스터. 12세 관람가. | 롯데(광주·첨단), 메가박스, 무등, 밀리오레, 엔터, 콜롬버스(상무·하남), 프리머스 제일, CGV(상무·첨단), 하미,목포 메가라인, 순천 롯데, 순천 프리머스, 여수 할리우드 |
| **천하장사 마돈나** 여자가 되고 싶은 뚱보 소년의 수술비 마련기. 배우들의 호연이 돋보인다. 15세 관람가. | 롯데(첨단), 메가박스, 무등, 콜롬버스(상무·하남), CGV(상무·하남), 하미, 목포 CGV, 순천 롯데, 순천 프리머스 |
| **예의없는 것들** 신하균이 혀 짧은 소리를 내기 싫어 말없이 살아가는 전문 킬러 ‘킬라’로 등장하는 블랙코미디. 19세 관람가. | 롯데(첨단·광주), 엔터, 콜롬버스(하남), 순천 롯데 |
| **괴물** 오염된 한강에서 돌연변이로 생긴 괴물을 상대로 가족의 사투가 펼쳐진다. 12세 관람가. | 롯데(광주·첨단), 메가박스, 무등, 밀리오레, 엔터, 프리머스 제일, 콜롬버스(상무·하남), CGV(상무·하남), 하미, 목포 메가라인, 순천 롯데, 순천 프리머스 |

주목! 이 영화

## 강동원·이나영 열연 눈물 ‘쏙’

### ‘우리들의 행복한 시간’

‘우행시’의 돌풍이 심상치 않다. 공지영 소설 ‘우리들의 행복한 시간’을 원작으로 미남, 미녀 배우로 손꼽히는 강동원과 이나영이 출연해 제작 단계서부터 관심을 모았던 영화.

영화 개봉을 하루 앞둔 13일 영화는 95.8%의 예매율(티켓링크 기준)을 보이며 상쾌한 출발을 시작했다. 이는 한국 영화 최대 흥행기록을 갈아치운 ‘괴물’이 기록한 91.9%를 능가하는 것이다.

죽을 날을 기다리는 사형수 남자와 세 번이나 죽으려고 했지만 죽지 못한 여자가 만남을 통해 ‘삶의 소중함’을 알게 되고 서로에게 사랑의 감정을 느끼게 된다는 전형적인(?) ‘러브스토리’다.

영화는 그렇지만 그 과정에서 관객의 눈물을 쏙 빼놓는다. 평소 감성이 풍부한 관객이라면 손수건을 준비해가야 할 듯. 소설 속에서는 자세하게 묘사된 어린 시절의 모습이 생략되기는 했지만 원작의 감동을 무리없이 스크린에 옮겨냈다. 주연을 맡은 두 젊은 배우의 호연도 영화를 빛낸다.

처음 촬영을 시작할 때는 서로 눈도 마주치지 않고 대화도 하지 않아 감독이 “제발 대화 좀 하라”며 부탁했다는 두 사람은 영화 속에서 실제 사랑하는 연인과 같은 애절한 눈빛 연기를 선보인다. 15세 관람가.

/곽선정기자 ksj@kwangju.co.kr

영화계는 지금

## 박시연 ‘일편단심 양다리’ 주연 캐스팅

드라마 ‘연개소문’, 영화 ‘구미호 가족’의 박시연이 영화 ‘일편단심 양다리’(감독 한승림, 제작 파랑새)의 여주인공으로 캐스팅됐다.

17일 크랭크 인 예정인 ‘일편단심 양다리’는 조소연의 동명 인터넷 소설을 원작으로 한 로맨틱 코미디. 양다리 공주와 양다리 왕자의 좌충우돌 애정행각을 그려 연재 당시 큰 인기를 모았으며 단행본으로도 출시됐다.

박시연에 앞서 재희와 신이가 캐스팅된 상태. 박시연은 여성적인 매력으로 남자주인공 재희에게 다가가는 역을 맡아 신이와 맞대결을 벌일 예정이다.

재희는 두 여성의 애정공세에 시달리며 즐거운 비명을 지르는 양다리의 주인공으로 코믹 연기를 펼친다